제목: 내가 개발한 게임 세계속에 갇혔다.

글쓴이: 글초보

**Episode 1. 튜토리얼.**

**1장 서사: 시작과 혼돈**

**어? 여기는...**

빛 한 점조차 들지 않는다. 사방이 어둡다. 귓가에는 고인 빗물이 웅덩이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

똑-.

-

똑-.

**-**

똑-.

일정한 리듬에 맞춰 떨어지는 빗물은 마음이 고요 해진다.

하지만 현재 놓인 마음은 상황과는 별개였다.

‘여기는 어디 지-?’

예컨대 동굴 안.

차가운 바닥과 축축한 공기는 현실감을 더했지만, 동시에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었다.

차라리 현실임을 부정하고 싶었다.

알 수 없는 당혹감이 올라온다.

갑작스레 일어난 곳은 발 끝조차 안 보이는 칠흑이었다. 꿈인가 싶었지만, 금세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나 차가운 바닥과 함께 몸이 으스레 떨려왔기 때문이었다.

‘납치?’  
내가 잠결에 납치를 당했다고?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누군가가 뒤척이기만 해도 잠에서 깰 정도로 예민한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했단 말인가?

현관문을 잘 못 잠겼었나? 그 또한 아니다.

가족?

하지만, 이제는 없다.

나를 납치해 갈 사람조차, 또한 세상에서는 그럴 정도로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문제였다.

여기 온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어쩌면 며칠이나 지났을지도 모른다. 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았다. 어딘지 모르는 이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든 중요하지 않는다.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만 한다.

원래의 삶이 좋아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 하겠지만.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책임감.

즉 책임감이었다. 외주는 책임감이 뒤따랐다.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서 돈을 벌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완성을 해야만 한다.

하다 못해 펑크라도 내버리는 순간. 끔찍했다.

분명, 엊그제만 해도 학교에서 숙제하고 외주 받은 게임도 개발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진짜로 큰일났다.

마감 또한 얼마 안 남았으며 디버깅도 했어야 됐는데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러 에러 덩어리 프로젝트로 제출할 게 뻔하다.

제작하던 게임 대규모 MMORPG-VR 혼합 장르로 라노벨 계열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차세대 트렌드에 맞춰 발전한 최초의 게임이었다. 게임 이름은- 넥서스 아스트랄 분명 라틴어로 별 머시기를 얘기했던 것 같았는데 내 파트와는 다르기에 간단히만 넘어갔었다.

정확히 나는 AI 역할만을 맡았기에 필요가 없었다.

참고의 용도였지 이해의 용도로 이것으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었다.

하지만 뜻을 분석하진 않더라도 여기서의 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게 내 인생의 업적 같은 거였다.

차세대 MMORPG-VR이라는 장르 즉 인류 최초의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임의 출시일을 나 때문에 스케쥴이 어긋날 수 있기에 데드라인 중압감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마냥 엄청난 프로젝트의 외주를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다. 후회가 몰려온다.

수 차례 큰일났다 만을 중얼거리면서 알 수 없는 길을 헤맸다. 다시 봐도 발이 희미할 정도로 어두운 이곳을 외부인이 쉽사리 오기 힘든 공간이었다.

만약 납치를 당한다고 가정해도 이런 곳에-? 굳이, 이런 곳에?

심지어, 이런 지형이 한국의… 광산이라고 가정해도 이렇게 넓은 동굴은 없을 텐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누가 이 딴 곳에 왜 온 거야’

문뜩 생각해보았어도 이 상황은 이상한 기행이었다,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품은 상태이었었다.

쿵. 머리의 둔탁한 음과 문의 청량함 소리가 공명했다.

“으악!”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그것도 아주 세게-

털썩 주저 앉고는 이게 뭐지 싶은 당혹감에, 그 앞을 뻔히 쳐다보았다. 보이냐고? 아니, 전혀 당최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앞이 안 보여도 이게 벽 인지는 경험상 알 수 있었다.

‘뒤지게 아프네!! 왜 이런 곳에 벽이-‘

동굴에 울려 퍼지던 내 목소리가 점차 수그러들었다.

고요함이 한 층 더 깊어져만 갔다.

깊은 정적만이 이 공간을 채웠다.

‘어?’

놀랐다.

주저 앉아 다시 일어나려 마냥 더듬거리던 나는 깨닫고 말았다.

이건 문이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건 문이었다. 이 감촉… 확실히 벽이 아니라 문이다. 혹시 모를-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빨리 이런 불필요한 곳에서 시간이 낭비되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빠르게 마감해야 된다.

‘나갈 수 있겠지?’

분명 문 고리가 있을 것이다. 어딘지 모를 문고리를 더듬더듬 손으로 살펴봤다.’ 굉장히 차갑다. 차갑고 딱딱한 표면.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구체화되었다.

‘여기 문고리가 있긴 한 거야?’

불안 감에 떨리는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작은 이음새나 돌출된 부분이 느껴진다. 금속의 냉기가 손가락을 타고 흘러 들어왔다.

‘문이 아닌가? 내 착각이었던 건가?’

그때였다. 손끝에 작은 굴곡이 느껴졌다. 나는 차갑게 얼 것만 같았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어디 있는 거야!!’

그때였다. 낯선 음성이 뇌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스테이터스 창을 열어.**

목소리는 희미했다. 남성의 다소 굵으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봤던- 아니다. 너무나 희미하고 기억의 편린 중 한 순간의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라 평생을 들어봤던 목소리 인 것 같지만 왜곡되어 추측하기 힘들었다.

누군가의 지시였을까-?

아니, 나는-.

무언가 본능에 이끌렸을지도 모른다. 왜 인지 따라 해야만 할 것만 같은-.

이윽고 나는 천천히 알려준 대로 발음하기 시작했다.

“스테이터스.”

간단하게 말했다. 평소의 나라면 창피해서 안 했을 짓을 어째 선지 시도해 보았다.

**[스테이터스 창]**

"뭐?"

눈앞에 펼쳐진 창에는 알 수 없는 정보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권능>, <종족>, <이름> 등 상세히 개인정보들이 자세히 나타나있었다. 키, 몸무게 등. 동시에, 스테이터스 창에서 밝은 그것도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니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스테이터스 창은 게임에서나 나올법한 것이기에 내가 사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해도 떠오르는 건 불완전한 조각들뿐이었다. 분명 내가 이것을 했던 적이 있었나? 그런 것 치고는 너무나 익숙하게 얘기했다.

‘만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얼빵한 표정으로 한동안 스테이터스 창을 바라보니 마저 해야 될 일을 잊고 있었다.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야 돼!’

**그때였다.**

바위 틈에서 들리는 미묘한 소리. 끼이이익- 처음엔 단순한 착각인 줄 알 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노란 빛이 동굴 밖으로 새어 나왔다. 긴장감이 몰려왔다. 숨을 고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이형적인 석상이 있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석상과,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석상, 그 중심에는 왕좌에 앉아있는 자그마한 석상.

흐릿하지만-

석상은 거대했다. 한 손에 든 법전만 해도 내가 서 있는 바위보다 커 보였고, 고개를 완전히 젖혀야만 얼굴의 윤곽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크기는 마치 풍력 발전기를 보는 것처럼 압도적이었다.

만약 그 석상이 움직인다면?

조그마한 움직임조차 소닉 붐을 일으키며 나를 짓뭉갤 것이다. 무섭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감? 보기만 해도 고소공포증이 생길 것만 같은-

식은 땀이 내 어깨 너머로 슬며시 흘러내렸다,

이윽고 **뚝**.

바닥에 물방울이 튀는 게 느껴진다. 귓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손에 잡히는 대로 바위 하나를 움켜쥐어 자세를 잡았다.